

농업밀실, 낙농밀실을 부추기는 한EU FTA 즉각 중단하라!

- 낙농제도개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청사진을 즉각 제시하라 -

앞친데 뒷친격이다. 한미 FTA 타결 충격이 체 가시지는 않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미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저버렸다. 애당초 농업은 최대한 민감품목으로 보호하겠다고 공헌해 왔으나, 지난 국회 농해수위 청문회에서 일부 밝혀진 내용만 보더라도 과연 농업에서 무엇이 보호 받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벌써부터 정부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농축산업은 EU도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얼마나 더 속아주기를 바라는 것인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한미 FTA 협상내용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게다가 피해액마저 축소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것으로 정부의 협상실패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오판이다.

EU는 낙농부문에서 전세계 우유생산량의 23.4%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수출 관심품목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때문에 한미 FTA 협상타결을 지켜본 EU가 높은수준의 개방을 요구해 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 FTA에서 명분만 얻은 채 무관세 TRQ 물량을 대폭 내주고 말았다. 더군다나 TRQ 관리방식도 미국측 요구대로 모두 수용해 버렸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EU와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선량한 국민과 농민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적 동의와 공론화 절차에 먼저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농림부는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편에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즉각 제시하고 올곧게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낙농산업은 제도의 산물이다. 제도가 올바르게 서야 그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자동차가 지나간 자리에 남아 있는 자는 항상 먼지만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리농업과 낙농산업 존립을 위해 진정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직시하고, 한EU FTA 협상 졸속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한미 FTA 무효화 투쟁과 함께 한EU FTA 협상중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07. 5. 7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